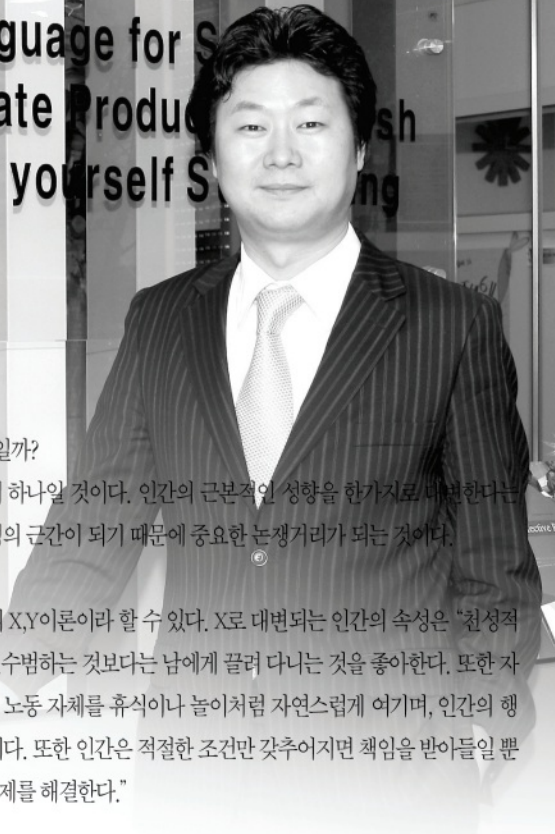


C.E.O Message

형성 [Becoming...]

"만약 사람이 무엇인가로의 변화를 추구
하지 않는다면 성장하기를 거절하는 것
이며, 스스로 인간 실존의 완전한 가능성
을 부정하는 것이다."

Language for S
Create Product
See yourself S



사람은 악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
이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을 한가지로 내뱉는다는 것이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개인의 관점형성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다.

사회과학에서 오랫동안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을 제공했던 것은 Mc Gregor의 X,Y이론이라 할 수 있다. X로 대변되는 인간의 속성은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자기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싫어하며, 자발적으로 출선수범하는 것보다는 남에게 끌려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자기중심적이며 철저한 이기주의적이다." 반면, Y로 대변되는 속성은 "인간은 노동 자체를 휴식이나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여기며, 인간의 행위는 경제적 욕구보다는 사회, 심리적 욕구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적절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책임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갈구하고 발달 가능성이 무한하며 스스로의 창의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지난 100년 동안 진화 해온 과학적 경영기법의 근간은 사람에 대한 통제와 관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속에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희망을 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 매슬로의 인본주의 심리학이었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핵심은 "형성(Becoming)"이라는 개념으로서 "인간이 항상 무엇인가 다른 존재가 되려는 과정에 있으며 이것이 곧 인간의 발전과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무엇인가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성장하기를 거절하는 것이며, 스스로 인간 실존의 완전한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매슬로는 이러한 형성과정(Becoming)의 절정에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을 두었다.

지식사회의 핵심구성요소는 Professionalism과 지식을 겸비한 개인에게 있다.
현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위에 내적 성찰을 통한 형성과정(Foming)이 중요하다.
조직도 마찬가지로. 늘 변화하고 성장하는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며,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과 성장이 본질가치와 함께 할 때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건강한 사회일원으로서의 기업시민이 될 수 있고, "Becoming 조직"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봄이다.
또 하나의 기적 같은 형성과정(Foming)이 시작되었다. ✍

Written by 대표이사 노상충 (James Roh)

